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7월 미 일자리 성장 예상 보다는 미흡…14만2천개
- NYT: 연준 입장에서 일자리 둔화하지만 '폭발'할 정도는 아니다
- Bloomberg: 뉴욕 연준 총재, "지금이 금리 인하 적절할 때"
- Bloomberg: 씨티 그룹, '올해 금리 0.5%씩 세 차례 인하'에 베팅

[미국 금융]
- Bloomberg: 오늘 일자리 보고서로 트레이더들, 큰 폭 금리 인하에 베팅

[미국 대선]
- Reuters: CEO 90여명, 미 대통령으로 해리스 지지 표명
- WSJ: 트럼프 "서류미비자의 주택 모기지 신청 금지하겠다"

[미 수출 통제]
- CNNBusiness: 미 정부, 칩 장비 등 첨단 기술 새로운 수출 통제 정책 시행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 금리, 작년 5월 이후 최저치 유지

[오일]
- WSJ: 미국 원유 비축량 예상보다 줄어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중국, 캐나다 전기차 관세를 WTO에 제소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BMW와 토요타, 수소 전기차 파트너십 맺어
- WSJ: 세븐일레븐, 서클 K의 390억불 인수 제안 거절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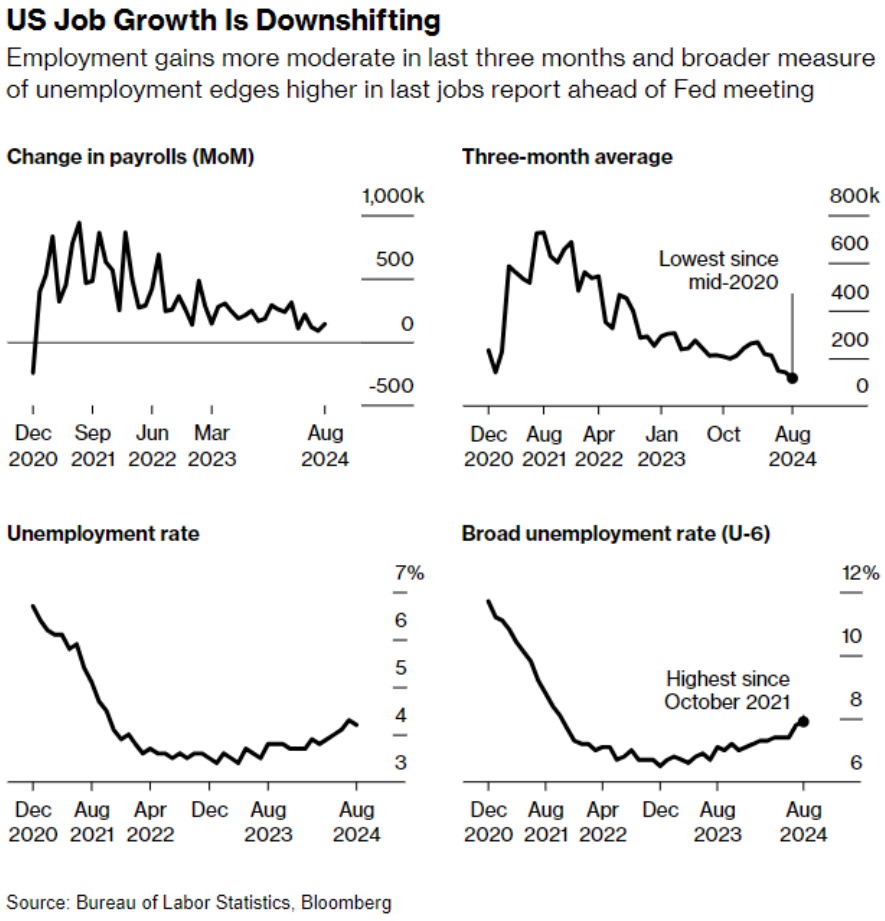
Bloomberg: US Job Growth Comes Up Short in Possible Warning Sign for Fed
7월 미 일자리 성장 예상 보다는 미흡…14만2천개

- 8월 미 일자리 성장은 예상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난 6월과 7월 일자리 성장이 하향 조정된 후 8월은 반등된 숫자이기는 하다.

- 이와 관련 연준이 얼마만큼의 이자율을 인하할지 논란이 될 수 있다.

- 연방노동통계청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8월 비농가 일자리는 14만2천개 늘었는데, 지난 3개월간의 평균이 2020년 중반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실업률은 5개월만에 처음으로 낮아져 4.2%를 기록했다.

- 현재 해고는 적지만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과 높은 차용 비용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확장 계획을 미루고 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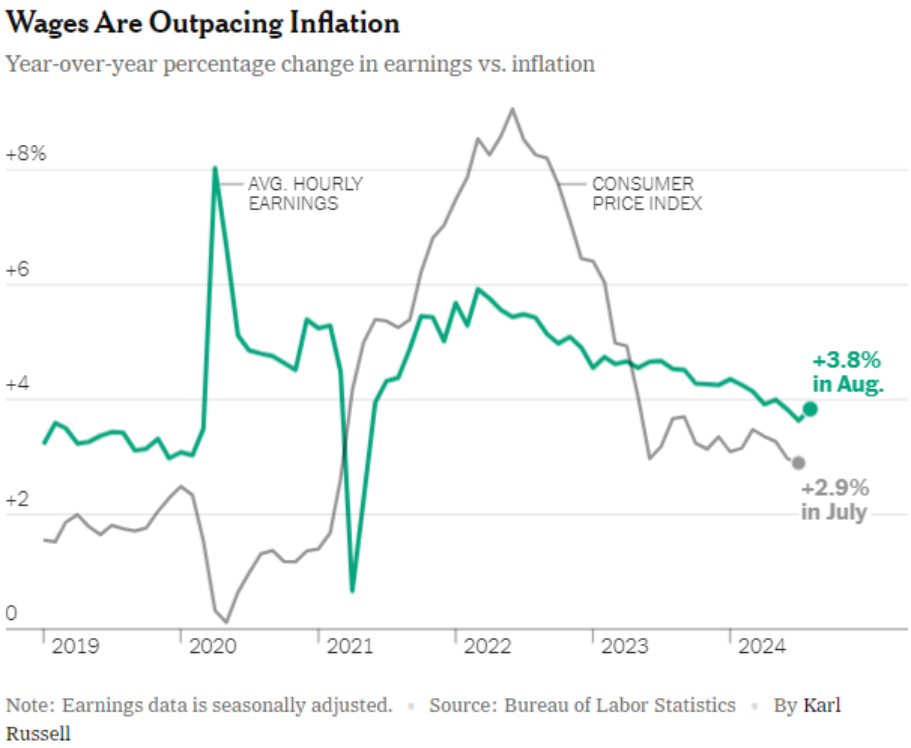
NYT: For the Fed, a Sign That the Job Market Is Cooling but Not Imploding
연준 입장에서 일자리 둔화하지만 '폭발'할 정도는 아니다

- 연준은 경제의 지나친 둔화를 막기 위해 팬데믹 이래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게 된다.

- 그런데 오늘 일자리 보고서는 연준 관리들에게 다행스러움과 우려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 실업률이 7월 4.3%에서 8월 4.2%로 개선되어 일자리 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신호는 연준 관리들과 근로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8월 추가 고용 숫자 14만2천개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보다 미흡했다.

- 현재 연준이 이달 금리 인하 폭을 0.25%로 할지 0.5%로 할지가 관심사다.
- 오늘 보고서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지 가능성은 거의 반반으로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



NYT 기사

Bloomberg: Fed's Williams Says Now Appropriate to Lower Interest Rates
뉴욕 연준 총재, "지금이 금리 인하 적절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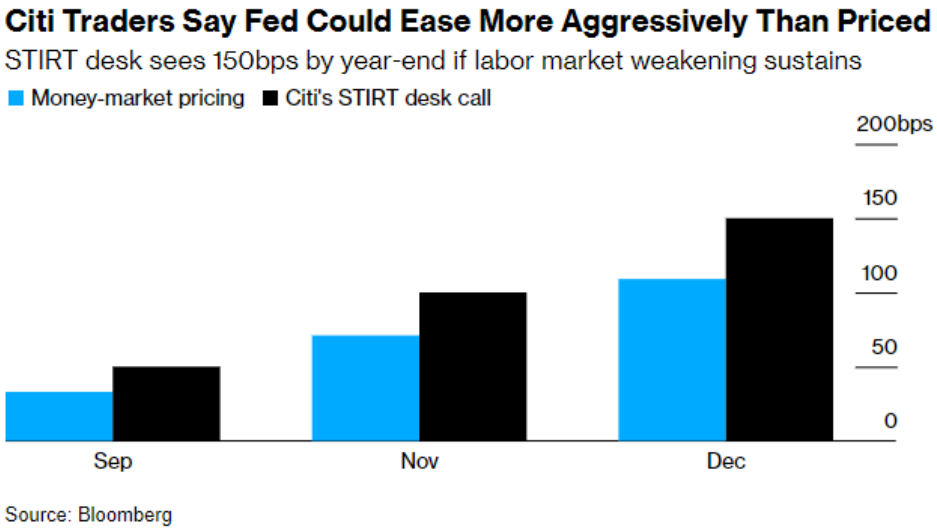
- 뉴욕 연준 총재인 John William은 인플레와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지금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그는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라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에 상당히 이르고 있다"며 양쪽 목표를 달성하는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오늘 뉴욕에서 열린 외교관계위원회(CFR) 행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면서 최근의 지표들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경제 및 노동 시장 둔화 현상과 부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iti Traders Wager on Three Half-Point Fed Rate Cuts This Year

씨티 그룹, '올해 금리 0.5%씩 세 차례 인하'에 베팅

- 씨티 그룹 트레이더들은 올해 연준이 0.5%씩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시장과 심지어 같은 씨티 그룹 내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보다 큰 규모이다.
- 구체적으로 이 은행의 단기 금리 트레이딩 데스크에 따르면 연준은 노동시장이 둔화하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트레이너들의 인하 폭은 올해 시장이 1%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입장과 비교되며, 특히 9월에 0.5% 인하하고 이어 11월과 12월에 각각 0.25%씩 인하할 것이라는 씨티 그룹 이코노미스트들의 당초 입장보다 큰 수치이다.
- 트레이더들의 이 같은 과감한 예상은 경제 우려가 표명되는 상황에서 최근 며칠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스왑에 따르면 이달 금리는 0.5% 인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3분의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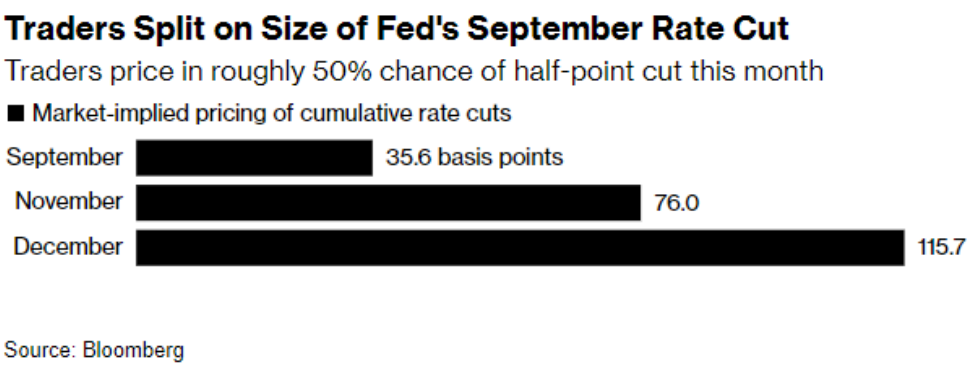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Traders Add to Bets on Jumbo Fed Cuts as Data Fuels Bond Rally
오늘 일자리 보고서로 트레이더들, 큰 폭 금리 인하에 베팅

- 미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트레이더들은 오늘 상반된 내용의 일자리 보고서 발표 후에 연준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데 베팅하고 있다.
- 연준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는 11 베이시스 포인트 낮은 3.65%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트레이더들의 연준이 이달에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베팅이 오늘 일자리 발표 전의 36%에서 50%로 상승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일자리 보고서가 3개월 연속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0.5% 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대선]

Reuters: More than 90 company executives endorse Harris for US president
90명 이상의 CEO들, 미 대통령으로 해리스 지지 표명

- 펩시, 포드사, 야후, YELP 등을 비롯한 90여명의 미국 기업 CEO들이 대통령으로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발표했다.
- 그들은 도널드 전 대통령에 맞서고 있는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가 미국 경제를 강화하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들은 또한 해리스는 미국의 비즈니스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기업체들이 경쟁하고 이길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추진한 업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Reuters 기사

WSJ: Trump Says He Would Ban Mortgages for Undocumented Immigrants
트럼프 “서류미비자의 주택 모기지 신청 금지하겠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택 가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의 모기지 신청을 막겠다고 밝혔다. 서류미비자에 대한 모기지는 합법적이지만 그리 흔하진 않다. Urban Institute 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서류미비자에 대한 모기지 융자는 5천~6천건 정도였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모기지는 340만 건 이상이었다.
- 이번 대선에서 주택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경제 이슈다. 판데믹 기간 동안 임대료, 주택 가격, 모기지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7월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주택 문제를 식료품 다음인 인플레이션 우려의 2위로 뽑았다.

- 전미히스패닉부동산전문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ispanic Real Estate Professionals) 대표 Gary Acosta는 트럼프의 제안이 미국의 모든 문제에 이민자를 희생양 삼으려는 또 다른 노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미국 서류미비자 모기지 이용자는 대부분 히스패닉계다.

WSJ 기사

[미 수출 통제]

CNNBusiness: US introduces new export curbs on advanced technology, including chip-making tools
미 정부, 칩 장비 등 첨단 기술 새로운 수출 통제 정책 시행

- 미국은 다른 우방국들의 통제 조치와 발 맞추어 퀀텀 컴퓨터를 포함한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 영향을 받는 기술은 컨텀 컴퓨터 외에 첨단 반도체 생산용 장비, 금속 부품 생산용 적층 제조 품목, 게이트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GAAFET) 기술 등이다.
- 연방 산업보안국의 관리인 Alan Esteves는 오늘의 조치는 수출 통제 조치가 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추고 우방국들과 협력할 때 더 큰 효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현재 영국 등 미 우방국들은 비슷한 수출 통제 정책들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CNNBusiness 기사

[주택]

Bloomberg: Mortgage Rates in the US Hold at the Lowest Level Since May 2023
미 모기지 금리, 작년 5월 이후 최저치 유지

- 미국 모기지 금리가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30년 고정 대출 평균은 지난주와 같은 6.35%였다.
- 주택 대출 비용은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이란 기대에 최근 몇 달 동안 하락했다.
- 그러나 여전히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거나 이에 근접했다. Freddie Ma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Sam Khater은 “여름 동안 금리가 내려갔지만, 주택 판매는 부진했다. 하지만 재융자 측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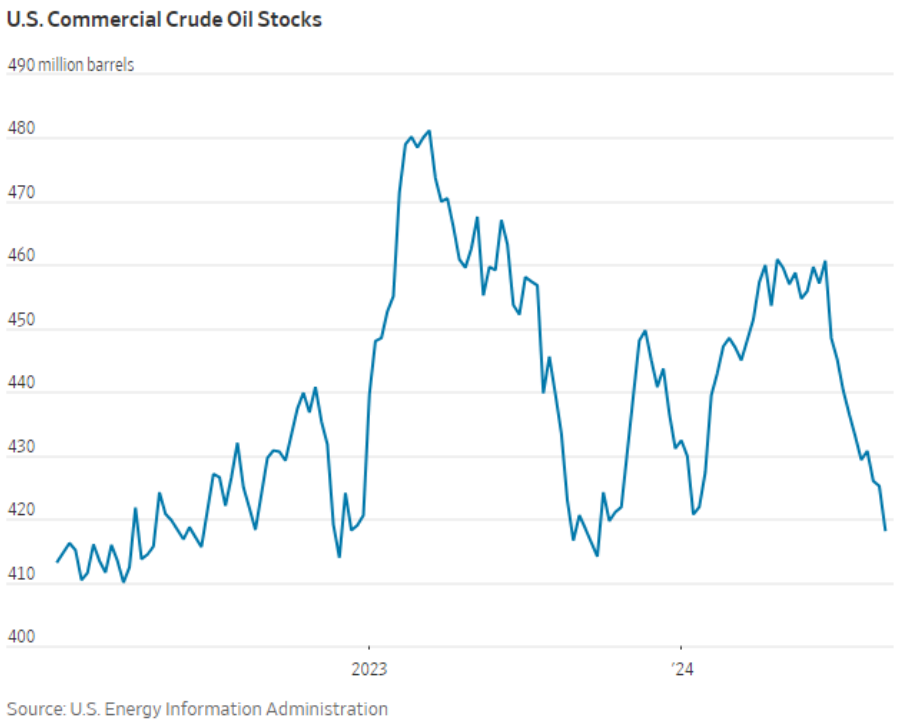
선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월 지급금을 낮추기 위해 모기지 금리 하락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U.S. Crude Oil Stockpiles Fall More Than Expected
미국 원유 비축량 예상보다 줄어

- 미국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미국 원유 재고가 수입 감소로 인해 예상보다 감소했다. 반면에 생산 및 정제 설비 사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 상업용 원유 재고는 8월 30일 690만 배럴 감소한 4억1천830만 배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5년 평균보다 약 5% 낮은 수치다. 전략 비축유는 180만 배럴 증가한 3억7천970만 배럴을 기록했다. 휘발유 재고는 84만8천 배럴 증가한 2억1천920만 배럴을 기록했다. 4주 만에 처음으로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다.
- 한편 OPEC이 생산 증가 계획을 연기했다는 보도 이후 가격이 2% 이상 증가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Again Capital의 John Kilduff는 "미국 휘발유 운전 시즌이 끝나 수요가 감소했다. 원유 정제 가동률이 유지되고 있어 원유 수요는 있지만, 올해 두 번째 성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 Lodges WTO Complaint Over Canada's EV and Metal Tariffs
중국, 캐나다 전기차 관세를 WTO에 제소

- 중국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금요일 캐나다의 관세 조치를 글로벌 공급망을 왜곡하는 무역 보호주의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 중국이 전기차 관세를 WTO에 제소한 것은 올해 3월 미국, 8월 EU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이 국내 경기 둔화에 대응해 수출을 늘리자,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거나 검토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 중국 상무부는 이번 주 캐나다산 유채 수입품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BMW, Toyota Aim to Make Hydrogen-Powered EVs Mainstream with Partnership
BMW와 토요타, 수소 전기차 파트너십 맺어

- BMW와 토요타가 수소 전기차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 BMW의 기존 모델 중 하나를 2028년에 토요타와 공동 개발한 수소 전기차 버전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 수소 전기차는 연료전지 내부에서 수소와 산소가 혼합될 때 생성되는 전기로 작동한다. 기존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한다.
- BMW 수소차 담당 부사장 Michael Rath는 친환경 자동차를 원하지만 전기차 충전기가 없거나 운전을 많이 해야 하지만 충전이 어려운 소비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WSJ: 7-Eleven Parent Rejects $39 Billion Buyout Offer by Circle K Owner
세븐일레븐, 서클 K의 390억불 인수 제안 거절

- 세븐일레븐 모기업(세븐앤아이)가 서클K 소유 업체(Couche-Tard)의 390억달러 인수 제안을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Couche-Tard는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수천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선 서클K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 이번 인수 제안은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기업을 인수하려는 드문 시도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수년간의 관행처럼 인수 제안에 소극적이지 말고 진지하게 대하라고 말했다.
- 정부 지침에 따라 세븐앤아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안을 검토했으며, 세븐앤아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제안에도 열려 있다고 답했다.

WSJ 기사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잠시 해소...경기침체 전조인가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잠시 해소된 상황을 두고 경기침체 전조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채권시장에선 4일(현지시간)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장중 짧게나마 10년 만기 금리보다 낮아졌다.

이후에도 2년·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상 만기가 긴 채권의 금리가 더 높은데 미 국채 시장에서는 2022년 7월 이래로 2년물이 10년물에 비해 금리가 높은 역전 현상이 이어졌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